

아시아개발은행의 농업과 농촌개발 사업



유 기 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수
kiheeryu@snu.ac.kr

I. 서언

식량의 안정적 공급문제는 2007년과 2010년의 식량 가격 폭등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식량안보가 인구의증가와 이주, 기후변화와 같은 주요 개발 당면과제와 연계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은 인구증가와 환경파괴에 따른 수자원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식량, 수자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아시아개발은행 (ADB)의 주요 개발목표로 되어 있다.

기후 변화, 극심한 기후 현상들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의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식량공급의 각 부분, 즉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이용, 식량제도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에 의하여 해수면 상승, 가뭄, 더위, 홍

수, 태풍, 강우 형태의 변화는 2080년까지 6억 인구를 영양결핍으로 이끌 수 있다. 국제식량정책연구소는 아시아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하여 2050년까지 수도작이 20%까지 감소할 수 있고, 관개로 인한 밀 생산이 44%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수확량 감소와 농경지의 감소로 인한 식량의 감소, 특별히방글라데쉬와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의 해수면 증가로 인한 수도작 재배면적의 감소를 기후변화가 식량공급에 미칠 중요한 위험요소로 보고있다.

아시아의 식량위기에 대하여 ADB가시행하고 있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방법, 농업 부문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농업부문 사업 투자 방향, 그리고ADB와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과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란 식량의 충분한 공급, 분배, 저장, 가격, 경제적인 접근, 영양의 질, 식품위생을 포함한

다. ADB의 장기개발정책 (ADB Strategy 2020) 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투자는 개발협력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ADB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성을 갖는 농업 부문중 부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특정 농업부문 분야에만 지원을 하여 왔다.

II. 아시아의 식량위기

아시아에서는 지난 45년동안 영양결핍된 사람들이 감소하여 감소해 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결핍 인구는 약 5억명이 되며, 남아시아 어린이들의 60%가 미소 영양소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영양결핍으로 매년 죽어가는 인구를 35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식량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불안정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식량가격의 상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량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약 1억 5천만명이 극빈자로 전락하였다.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식량가격이 상승하는데 대처하기에 취약하다. 2000년이래 아프카니스탄, 북한, 몽고, 네팔,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동티모르는 식량부족국가로서, 인구의 대부분에게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 공급, 의료혜택, 주거, 교육, 기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없다. 현재 식량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며, 식량, 사료, 연료에 연계되어 식량가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식량가격이 상승하면, 좋은 품질과 위생적이고 영양적인 식품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건강과 고용을 어

렵게 한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 공적개발기관들이 사기업들과 함께 다루어야 할 과제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투자를 증진하여야 한다. 식량안보는 공급을 증가하고, 가격, 질, 영양소, 그리고 언제나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07년에 전 세계의 영양부족인구는 7500만명에서 9억 23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충분한 식량이 없으면, 이렇게 증가된 영양부족인구에 식량을 공급할 수도 가공할 수도, 교환할 수가 없다. 충분한 식량공급은 농산물에 생산과 유통, 시장, 재정에 대한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리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무역, 재정, 저장, 분배, 영양개선, 시장의 효율성, 천연자원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식량생산에는 효율적인 식량생산시스템, 물량, 생산물의 질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더욱 더 있어야 하겠다.

오랫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농업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하였다. 1980년대에는 농업에 대한 공적 자금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초에는 공적자금 투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것은 농업생산성이 증대하였고, 산업화와 농업금융에 중심을 두었으며, 농업에서 사기업의 참여가 증대하였고, 농업투자의 생산성비교 우의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식량안보 문제가 생기자, 농업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8년 식량위기가 발생하자, 이미 생산하여 저장된 식량을 식량이 부족한 지역으로 긴급지원하도록 국제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이후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업에 전략적인 지원을 하였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는 지난 45년간 농업에 공적자금 지원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1980년대 8.5%에서 1990년대 8.1%, 2009년에는 4.9%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부분에 공적 투자를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아 각국에서는 농업에 공적투자를 증대하였고, 식량가격의 상승에 대비하여 식량안보문제를 심각하여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II. ADB의 식량위기에 대한 대처

ADB의 농업부문의 투자는 1990년대 들어서 다른 분야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ADB가 설립된 1966년부터 1980년까지 ADB는 농업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여, ADB투자의 25%를 농업부문이 차지하였다. 농업부문의 투자사업들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의 27%이었으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1%로 줄어들었고,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7%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ADB의 전체 투자금액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부문에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농업부문의 투자를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 관개사업과 수자원관리 사업에 투자된 것이다. 농업 생산과 판매 시장에 대한 투자는 26%를 차지하고 있고, 수자원관리 사업은 관개사업, 배수사업, 홍수방지사업이 31%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개발부문의 투자는 1981년-1990년도에 비하여, 1991년부터2000년도에는 3배로 증가하였는데 비하여, 수자원관리 사업은 1981년부터 1990년도의 70억원에서 1991년부터2000년도에 5,770 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01년부터2011년도에는 1조 3천

표 1. 연도별 농업부문 투자

연도	전체 투자 (\$ Billion)	농업부문 투자 (\$ Billion)	농업부문 투자율 (%)
1968-1980	8.093	1,992	25
1981-1990	24,169	6,503	27
1991-2000	54,411	6,089	11
2001-2011	85,686	5,885	7

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토지자원관리는 꾸준히 8%의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7년에 식량가격상승에 따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ADB는 지역 식량안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ADB의 장기전략에서도 아시아에서의 인구증가, 천연자원에 대한 압박, 식용작물의 경쟁적 이용, 극한 기후 현상과 기후변화, 장래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의 증가들을 지적하였다. 물론 농업이 ADB Strategy 2020에서는 주요 사업분야는 아니었지만, 2008년에 ADB는 식량안보에 대한 조직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2009년에 ADB의 식량안보 계획 (Operation Plan for Sustainable Food Security, OPSFS)을 준비하여,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를 위하여, 매년 2조원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OPSFS는 ADB에서 농업과 식량안보의 투자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는 농촌과 도시인구에 대한 식량안보의 복잡성을 인지하였고, 식량안보를 위하여 여러분야에서 함께 공조할 것을 권장하였다. 식량안보에 대한 기존 투자사업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였던것을 인정하였다. 또한 포괄적 농업과 식량안보의 가치체인을 개발하여서, 식량안보를

증진시켜야할 필요성도 지적하였다.

OPSFS는 식량안보의 세가지 측면을 목표로 하였다. 첫째로, 농업생산을 위한 수자원과 토지자원에 관련된 생산성 향상, 둘째로 식량생산과 시장, 서비스, 기타 부문과의 연결, 셋째로 기후변화와 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조정의 측면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관개사업을 제외하면, 농업생산성에서의 직접투자는 ADB Strategy 2020의 주 사업분야가 아니다. 이는 과거에 공급자 주도의 농업투자사업이 효율성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농업부문의 투자 사업들은 역시 ADB Strategy 2020의 주 사업분야인 지속가능한 토지의 사용, 시장, 농촌도로, 농가 금융을 포함한다. 그리고 농업부문 투자사업들이 환경, 교통, 전력, 교육, 사기업 투자와 같은 ADB의 주 투자분야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증진하는 사업들을 포함하였다. 농업생산성 증대를 좀더 광범위하게 취급하기위하여, 식량안보의 종합적 투자를 광범위한 농업투자로 전환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ADB의 사업투자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은 식량안보를 증진하는 농업투자를 촉진하였다. 2009년에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는 2.2조원이었다. 식량안보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ADB는 식량안보의 투자전략을 수립하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2.5조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투자하였고, 주요 사업들은 관개사업 (43%), 수자원관리사업 (24%), 농촌개발사업 (14%)이었다. 이는 매년 2조원을 투자하던 농업, 농촌개발, 식량안보 분야의 투자보다 많아진 것이었다.

농업부문 투자사업은 수자원개발과 관개사업이 주류가 되었고, 이는 식량, 물과 전력 (Food-water-energy)의통합개발을 추진하였던 노력의 일환으로 수자원에 중점을 두었던 결과이다. 농촌시설은 도로, 전력, 시장개발을 포함하였다. 나머지는 순수한 농업투자 사업으로서,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쉬,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몽고, 파키스탄의 국가들의 식량안보 지원사업들이다. 이러한 식량안보지원사업은 종자, 비료, 농촌지도 사업으로 벼재배와 다른 식량작물, 농업노동력동원을 위한 식량지원, 사회보장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특별히 2010년에 ADB는 식량안보를 위한 지역투자포럼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와 함께 개최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식량안보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IV. ADB의 농업부문 사업 평가

ADB의 농업부문 사업들의 개발사업의 성공여부는 1968년부터 201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준다. 1968년부터 1980년도대의 초기 농업개발사업들의 실적은 36%만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고, 1981년부터 1990년도에는 41%,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는 동기간의 모든 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시행실적인 61%와 55%의 성공율에 대비하여 낮은 성공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도대에는 농업부문의 사업들의 성공율이 56%로 개선되었고, 2000년부터 2010년도의 전체사업들의 성공율인 67%에 도달하게 되었다. 농업부문의 사업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데에 비하여, 다른 부문의 사업들은 사업시행이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의 농업부문 사업 시행이 개선된 것은

표 2.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농업부문 사업 평가

경험	1995-2000	2001-2005	2006-2007	2008	2009	2010	2011
평가및 연구			1차 식량위기	장기투자전략	농업부문 사업 계획	2차 식량위기	
	농업연구	산림과 수자원	빈곤 극복		공공부문 개혁	수자원개발 정책	식량안보
	작물과 수산	양식업 연구	수산정책		농촌도로	농업부문 사업 시행분석	농산물 부가가치 개발
결론	농업부문사업 실적 저조 사업설계 개선 농산물 이윤의 증대 종합정책, 조직과 시장의 연결,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연구의 진작과 적용성 증진			농업연구는효 과적이나, 실 용적이어야 함	농업부문 사업의 개선 사업설계 개선 종합적인 농업부문 투자 정책, 즉 조직과 시장의 연결, 지속가능한 농업 농업연구의 부족과 지식전파의 부족은 재정지 원의 부족		

(1) 수산, 산림, 축산분야의 사업들이 덜 집중되었고, (2) 농업부문의 사업실적이 나쁜 정책지원사업들이 감소하였으며, (3) 시장과 수요에 의한 사업들의 시행이 사업 시행개선의 주 원인이 되었다. ADB의 장기개발정책이 농업부문 사업시행실적이 낮기때문에 농업부문의 투자를 감소시킨 것이기에, 농업부문의 사업시행이 개선된 것은 장기개발정책의 변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과거의 농업부문 사업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은 (1) 농업부문의 복잡한 것에 비하여, 부적절한 투자사업설계와 초기 사업 시행에서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 (2) 사업준비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현지 조건을 사업설계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 (3) 사업 설계의 복잡성과 사업시행기관의 능력부족, (4) 사업 시행시 문제점들을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중반까지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지고, 자연재해, 정치적인 불안정이 사업 실패와 사업시행 실적이 부진한 것에 기여하였다.

기존 사업들의 사업시행에서 얻어진 교훈들은 새로운 사업 설계와 시행에 있어서 반영되고 있다. 사업시행의 성공률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최근의 사업들에 개선된 사업성계와 사업시행시에 문제점들에 대한 신속한 반응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사업 평가에 의하면, (1) 사업시행청의 강한 소유의식, (2) 농민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3) 복잡한 사업시행사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융통성있고 즉각적인 대처, (4) 연구, 능력개발, 적절한 사업시행 준비에 무상공여자금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근에 환경의 악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농업부문의 사업시행이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산림사업은 토지 안정화와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 수산과 산림분야 사업들은 사업 실적이 33%와 50%의 성공율로 실적이 저조하다. 물론 수산, 산림, 축산분야의 사업들은 투자규모도 미미하다. 2007년이후엔 축산과 수산분야는 신규사업이 없었으며, 환경분야 사업의 한 투자 항목으로 수산자원관리와

유역관리 사업이 포함되고 있다. ADB에서 산림, 수산과 축산분야는 투자분야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식량안보와 농촌의 빈곤퇴치, 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다. ADB는 이러한 분야를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광범위한 농업투자사업에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하려고 한다.

V. ADB의 농업부문 투자 사업의 추진 방향

1. 농업종합사업의 적합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농업종합사업의 성공율을 평가할 때 고려하는 요소, 즉 정책의 적합성, 효과, 효율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량생산과 관련된 사업들의 정책적 적합성은 85%로 우수하였으나, 효과와 효율성은 69%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농가금융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사업이 만족하였기에 나타난다.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연계를 시키고, 기간 시설물 건설에 있어서 농민의 참여를 고취하여 시설물의 사용율을 높이며,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재정적인 이윤을 증대시키도록 추천되었다.

지속가능성은 문제가 많다. 표3에서 보인 것과 같이 지속가능한 사업은 49%에 불과하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다양한 농업부문의 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은 사업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간시설물 건설과 같은 사업들은 비용회수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기 것에 비하여, 종합적 농업 사업은 비용회수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 지속가능성은

표 3. 농업종합사업의 성공분석

분야	전체 사업수	적합성 (%)	효과 (%)	효율 (%)	지속가능성 (%)
농업부문 전반	93	84	68	70	47
금융	9	56	33	22	44
복합분야	9	100	100	100	75
교통과 통신	12	100	75	75	45
상수도과 도시개발	2	100	100	100	100
계	125	85	69	69	49

이루기가 어렵다. 농업과 농촌개발사업은 재정수입을 발생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 참여가 없으면, 유지관리 비용을 회수할 수 없고, 기후변화와 시장의 변화에 따른 외부요인과, 농업자재와 새로운 영농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농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종합농업개발사업들은 한 분야가 성공적이거나, 다른 분야의 투자는 성공적이지를 못하기에,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2. 다른 개발협력기구와의 비교

각 개발기구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ADB의 농업개발 실적은 우수하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27개 사업들은 2007년에 비교하였는데, 성공율이 60%이었다. IFAD는 농업과 농촌개발사업에 집중하는데, 83%의 성공율을 보였다. 세계은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승인된 사업은 79%가 다른 부문의 사업들과 같이 성공적이었다. 농업과 농촌개발사업은 2000년도에서 2002년에 48%, 2003년에서 2005년에 62%, 2006년에서 2008년에는 73%의 성공율을 보인 것은 ADB의 농업과 농촌부문 사업의 성공율과 비슷하다.

세계은행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ADB와 세계은행의 지속가능성은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ADB와 세계은행의 성공율을 지속가능성을 제외하여 비교하면, ADB의 성공율이 77%이기에 세계은행의 사업 성공율과 비슷하다. IFAD 역시 지속가능성은 ADB와 같이 아주 낮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꾸준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겠다.

3. 지역 협력과 파트너십

ADB는 아시아지역에서 식량안보를 위한 협력을 이끄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최근에 식량가격 급상승에 따른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전체를 위한 식량이라는 책자를 30개국에서 400여명의 전문가를 동원하여 2011년에 발행하였다. 이 도서는 FAO와 IFAD와 함께 (1) 아시아태평양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기로 하였고, (2) 각 정부의 식량안보정책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3) 각국 정부들, 사기업들, 국제기구들, 민간단체들, 기타 기구들과의 협력을 증대하고, (4) 창의적인 접근방법과 좋은 방법들을 전파하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식량안보의 이해를 넓히고, 종합적인 접근방법과 협력을 통하여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4. 농업부문 투자계획

ADB는 농업부문 투자계획 (Operational Plan for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2020)을 2014

년에 만들어서 2020년까지 OPSFS를 지원하기 위하여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농업생산성 증진, 소득 향상, 기후 변화 대응,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 증진만 외에도 시설물, 영농지도, 역량 강화, 주민의 참여, 사기업의 참여 확대, 가치 창출등과 같은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추구하고자 한다. 종합적인 농업개발을 통하여 효과를 증진하는 것은 ADB의 모든 투자가 꼭 그런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ADB의 비교우위성에 기초하여 보다 강력하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협력을 추구할 뿐이다. 협력의 정신으로 이 분야의 개발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많이 만들고, 농업투자 사업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VI. ADB사업에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 경험 적용

한국은 이제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선진기만에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모든 아시아국가들의 선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경제를 개발한 데는 1960년대부터의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의한 농업부문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각국은 아직도 식량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농업부문에서 산림과 수산, 축산분야의 발달이 미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도농간의 소득의 격차가 크고, 농업부문의 발달없이 2와 3차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어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치 안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에서의 발달된 선진 농업기술과 IT산업의 발달을 아시아의 국가들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의 농업기술과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적인 경험을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전수하여, 각국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이바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여서 빈곤을 감소할 수 있는 경험을 현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지식공유사업들을 전개하여야 되겠다. 이는 유축농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업과 수산, 산림, 축산의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전달하여 줄 수 있는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하여야 되겠다.

또한 농업개발사업을 종합적인 농업개발사업으로 성공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여야 되겠다. 이는 각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개발로 당면과제를 마을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사업을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마을단위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새로운 새마을운동의 전수를 추천한다. 한국의 농업부문 개발의 성공적인 사례는 일찌기 빈곤을 경험한 농민들이 함께 농촌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점들을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준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을 각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현지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시범으로 개발하고 적용하여 각 나라에서 지역 특성에 알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농촌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한국의 농업과 농촌개발 기술과 경험을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기금을 통하여 전파할 수 있어야겠다. 현재 한국정부의 대외원조기금은 기획재정부의 한국지

식공유자금, 아시아 지식전파자금, 그리고 경제개발협력기,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의 기술공여자금이 한국의 농업과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나눌수 있는 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또한 ADB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정책개발, 연구, 기술 협력, 인력개발을 위한 무상원조기금들이 있다. 특별히 이러한 국제기구의 무상원조기금은 한국정부의 대외원조기금과 함께 지원할 경우, 사업을 만들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외원조기금들을 통하여 국제기구들과 함께 한국의 발달된 농업과 농촌개발사업을 아시아와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는 사업을 추천한다.

VII. 결론

ADB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해왔으나, 아직도 할 일이 많다. ADB는 지난 45년간 이미 식량의생산과 공급 과정을 개발하였고, 시장의 효율성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ADB의 농업정책은 각국 정부의 정책에 적절히 부응하였으며, 각국정부의 농업개발 정책에 효과적이었다. ADB 농업개발사업들은 사업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12년에는 다른 부문의 사업들과 같은 성공적인 실적을 이루어 내고 있다. ADB의 비전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빈곤퇴치이므로, 지역의 문제점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촌빈곤, 빈부격차의 확대, 환경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부담을 조직적으로 대응하여야하는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ADB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법은 ADB의 장기 투자전략에 부응하고, 새로운 사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아시아가 당면한 도전을 해결하기위한 ADB의 지역적 노력은 충분하기하는 질문이 남아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의 식량안보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는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문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ADB는 (1) 장기투자전략에 의거하여 식량생산을 위한 투자를 증대하여야 하고, (2) 농업연구의 효과를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성공적인 연구실적을 전파하고, (3) 사기업의 참여를 조장하고, 종합적인 식량안조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식량의 안전과 양질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ADB의 농업부문의 사업들이 기존의 투자사업들에서 경험한 지식들을 새로운 사업들에 잘 적응함으로써 사업의 실적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왔다.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투자방법인 농촌도로, 다른 시설물, 자원관리, 농촌지원사업, 농업기업, 사기업이 참여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증진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투자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개념은 전 세계가 당면한 식량, 수자원, 전력부족의 문제점들과 연계하여, 종합적 농업물생산이 수자원과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진하도록 한다. 최근에 식량안보에 관련된 투자사업들은 아시아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였다. 농업부문의 투자사업들은 설계를 개선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여 사업의 성공율을 높였다. 또한 종합적 농업개발방법으로 성공율을 높였고, 농업연구지원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지원이 의문시되고 있다.

농업종합개발사업은 다른 원조기관들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제공하고, 아시아의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과 투자 협력을 이끌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발달된 농업개발경험을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하여서 아시아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개발협력을 한국의 대외원조기관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개발의 추진력이 된 새마을운동의모형을 아시아 각국의 현지 사정에 맞는 모형으로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 및 농촌개발경험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이루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비전을 실현하여야 되겠다.

참고문헌

1. 국제농업개발기금. 2011. 2010년사업의 연차보고서. 로마
2.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ADB. 2009. 아시아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마닐라
3. 세계경제포럼, 2011. 지구의 당면과제, 6판, 제네바
4. 세계식량안보위원회. 2008. 34차회의록. 로마
5. 세계은행. 2011. 식량가격불안정 대책과 식량안보 영향. 워싱턴DC.
6. 세계은행. 2009. 경제전망. 워싱턴DC
7. ADB. 2008. 장기투자전략, 마닐라
8. ADB. 2009. 식량안보 실천계획, 마닐라
9. ADB. 2011. 전체를 위한 식량. 마닐라
10. ADB. 2012. 연차평가보고서. 마닐라
11. ADB. 2013. 농업과 자원분야 실천계획. 마닐라
12. UNDP, 2008. 기후변화에 도전하며. 뉴욕

기획: 배승중